

<b>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b> <b>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b> <b>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b>	<h1>취재요청</h1>	
	2024년 7월 22일(월)	조진영 노동안전보건차장 010-9913-92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0일, 피해 가족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노동지청 앞
- 공동주최: 민주노총,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 ※ 피해 유가족 기자회견 참여.**
- ※ 7월 23일 전국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이 진행됨.

**2) 취지**

- 6월 24일 (주)아리셀에서 발생한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지 30일이 되었습니다. 7월 5일 경기도 주선으로 에스코넥·아리셀 사측과 1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30분 만에 종료가 되고 이후 사측은 교섭 담당자 선정을 하지 않으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측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개별 문자로 개별 합의안을 제시하며 1차교섭에서 사안 해결을 위한 요구에 대한 어떠한 답변과 노력도 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참사의 심각성에도 구속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위장도급과 불법과건 감독은 하지 않으며 화재 사건으로 단순 축소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피해자 가족들은 전국으로 사안을 알려내기 위해 서울노동지청 앞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하여 발언을 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안)**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 윤복남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발언
-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유족 발언
-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발언